

KPRC, 자원순환 사회구축 CI 발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은 국내 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촉진과 자원순환 사회 구축의 의미를 담은 상징마크(CI)를 확정했다고 5월8일 발표했다.



확정된 CI는 자원순환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의미를 담아 포장재를 피비우스 띠로 형상화했다.

또 사슬로 강한 결속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재질과 구조가 다른 포장재의 폐품을 모아 보석과 같은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된 의미를 부여한 육각형이 담겼다.

기존 6개 공제조합이 하나로 결속돼 포장재 재활용 산업의 발전과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밑알이 되겠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로고 글씨체는 공제조합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변형된 볼드체를 사용하는 등 상호 협력과 신뢰감을 강조했다.

색상 가운데 청색은 조합을 상징하는 색으로 성실과 책임을 의미하며 초록색은 재활용사업의 영역을 진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섭 공제조합 이사장은 “CI 확정을 계기로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과 자원순환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4/05/08>